

태양계

글 | 송지혜

그림 | 박은현

글 | 송지혜

그림 | 박은현

편집 | 김은파, 이수인, 이정아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윤성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선은 아주 빠른 속도로 멀리 날아가 태양계의 행성들을 만나고 돌아올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출발해 볼까요?

태양계의 중심 태양! 태양은
불타오르는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이라고 할 수 있지요.
표면의 평균 온도는 무려 약
5,000도! 그러니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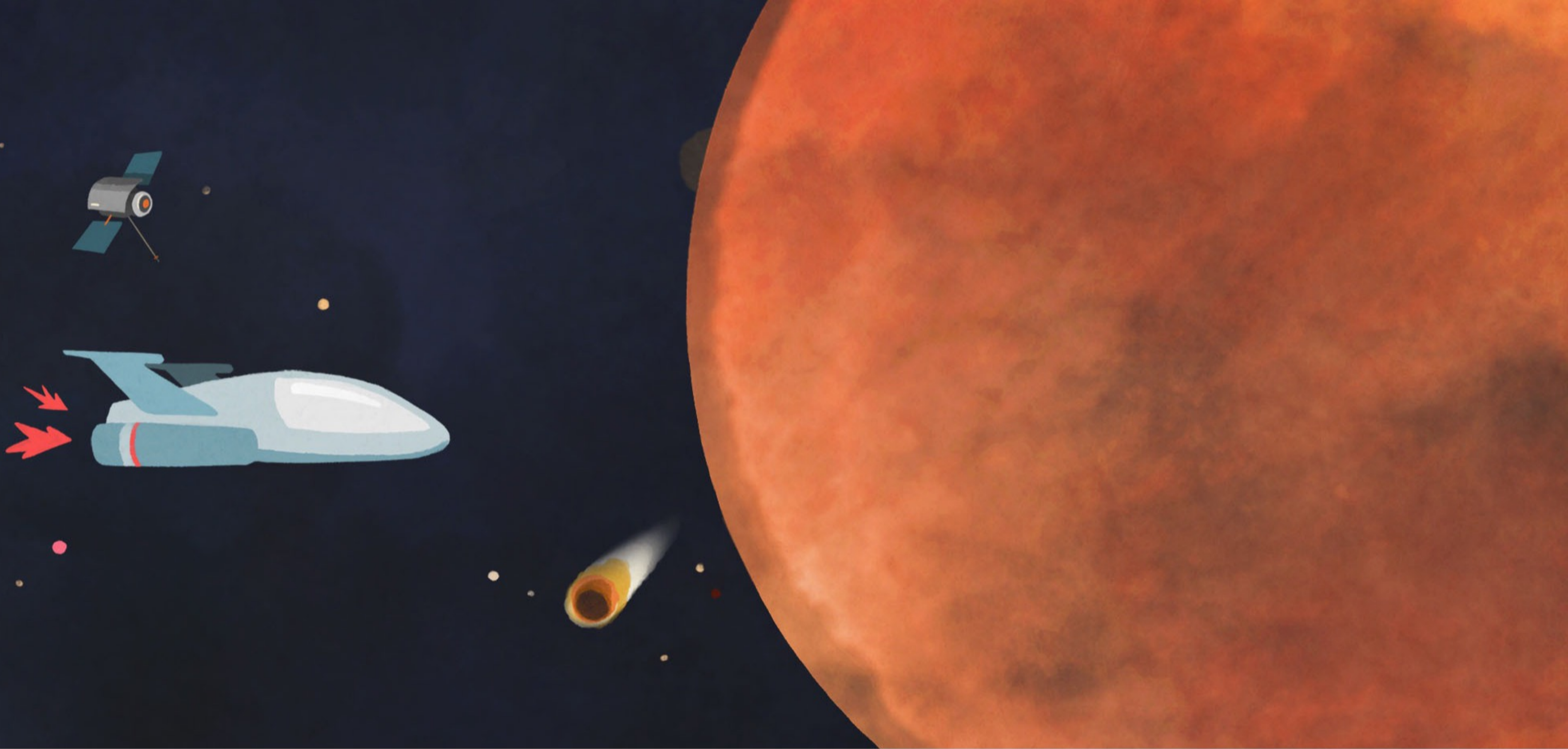


그럼 이제부터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부터 만나 볼까요?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은 마치 달처럼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아주 심한 곳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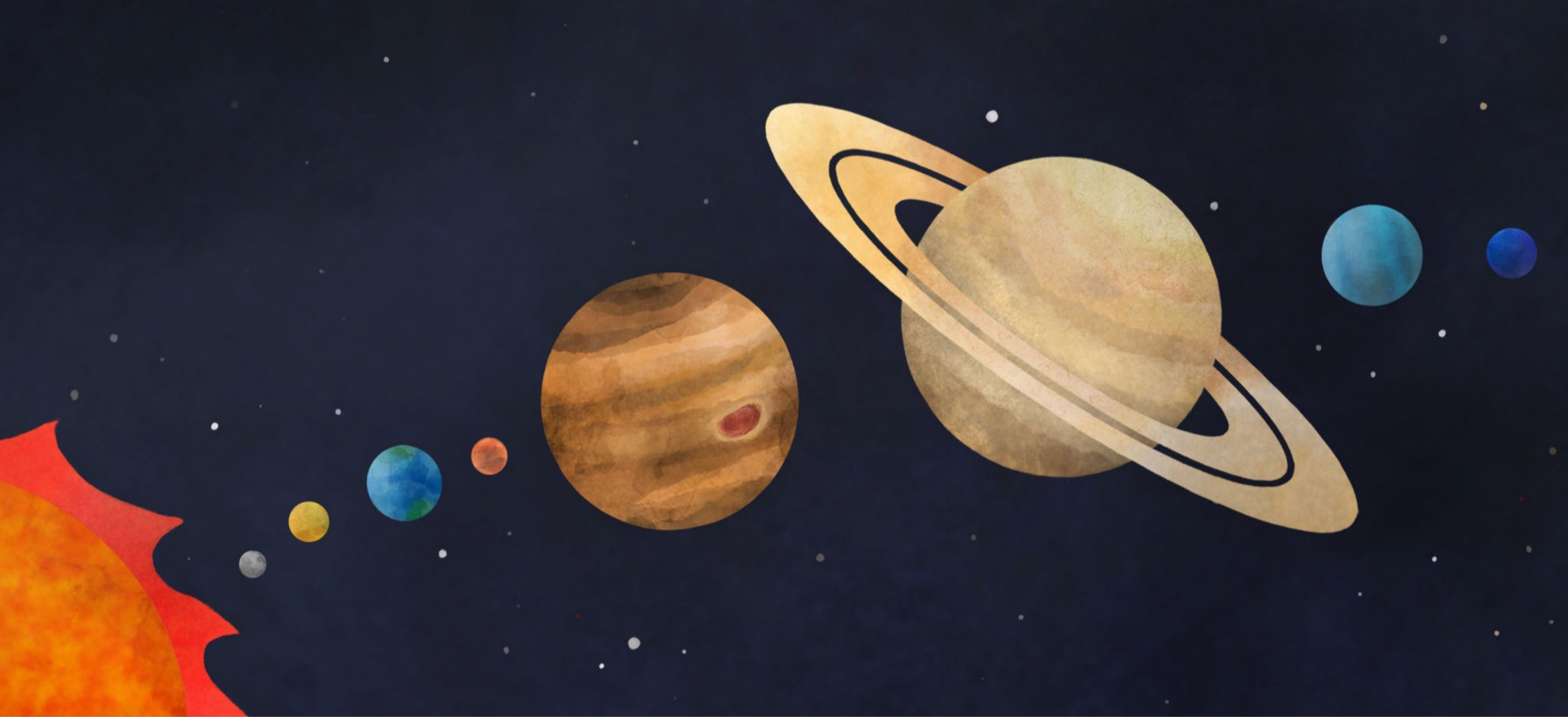
‘샬별’이라고도 불리는 금성은 밤하늘에서 아주 밝게 빛나요. 금성을 둘러싼 두꺼운 이산화탄소 구름층이 태양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랍니다.



태양에서 세 번째 행성인 지구는 푸른 보석처럼 빛나는
행성이예요. 물이 풍부하고 기온도 적당해서 어느 곳에서도 수많은
생명체가 사는 활기찬 곳이지요.



붉은 색을 띠는 화성에는 지구보다도 훨씬 큰 골짜기와 화산이 가득해요. 이곳에서 얼음 상태의 물이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은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크기는 작지만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들이랍니다.



이제부터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목성형’ 행성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이들은 지구형 행성처럼 발을 디딜 만한 단단한 표면이 없지요. 대신 멋진 고리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수많은 위성들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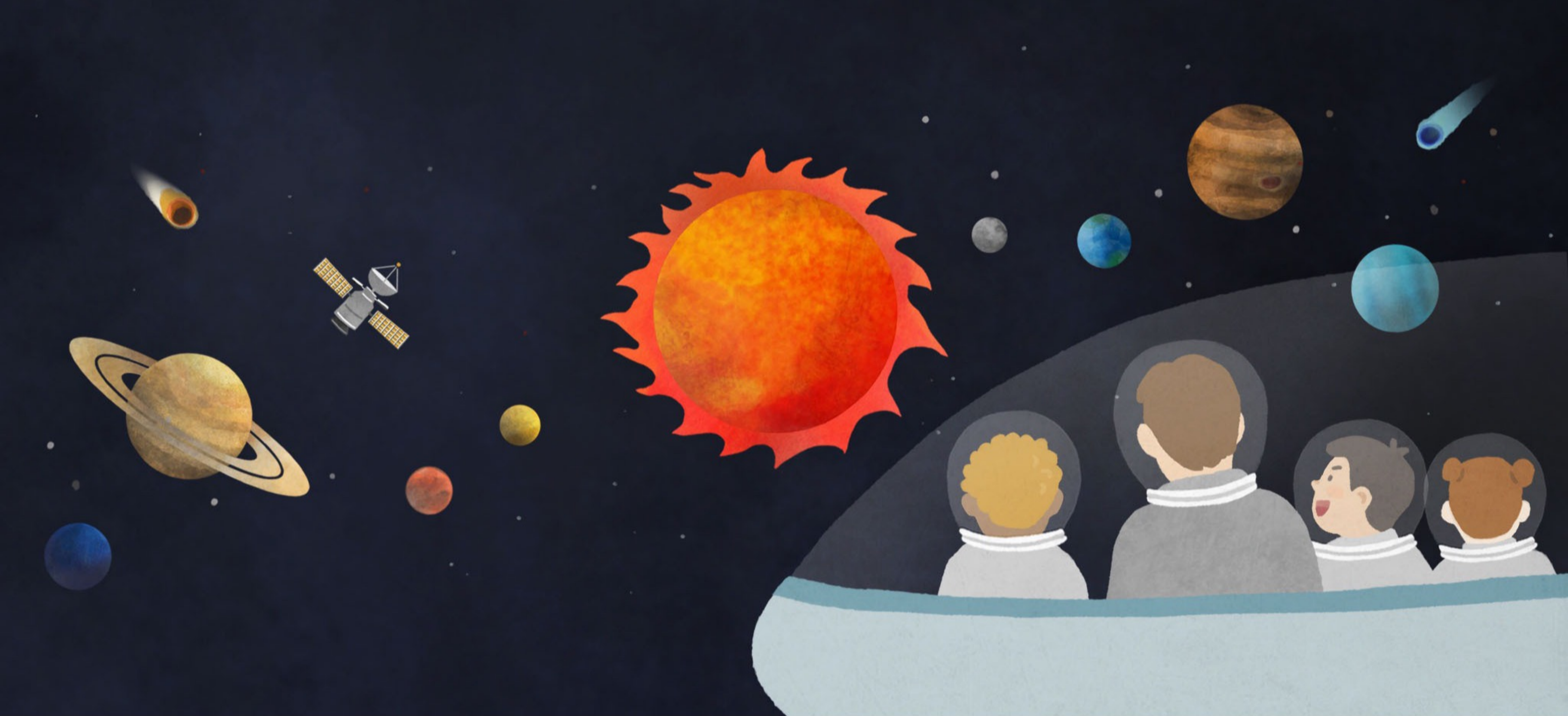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목성!
목성의 가장 큰 특징인 붉은 점은
사실 거대한 폭풍이랍니다.

토성은 아주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몸집에 비해 무척
가벼워서 물속에 넣는다면 둥둥
뜰 정도지요.



청록색 보석처럼 반짝이는
천왕성은 특이하게도 거의
옆으로 누워서 태양 주위를
돈다.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왕성은 무척
사나운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너무 멀리까지 와 버렸네요. 서둘러 돌아가지 않으면 많이 늦겠는걸요. 다음 기회에는 태양계 너머까지 우주여행을 떠나 보면 어떨까요?

“태양계”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